

협회,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간담회 개최

- ◇ 회원사 운영상 애로사항 및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심도있는 협의
- ◇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 추진 및 상생 자율 협약 체결기로 합의
-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순환골재 사용조건 부여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난 3월 24일(수) 우리 협회는 정병철 회장과 오안석 광주·전남지회장, 유희권 전북지회장, 박인규 전북부지회장, 손성엽 제주지회장, 임병권 조합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류연기 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처벌이 아닌 계도 중심의 지도단속, △업계 대상으로 환경 법규 관련 실무교육 실시 및 간담회 정례화, △미세먼지 정책 및 환경재난 대응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순환골재 활용방안 등 반영,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 프로그램 공동 운영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류연기 청장은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 외에는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간담회 정례화, 상생협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시 순환골재 사용조건 부여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2~'21.3)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배출저감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복구작업을 위한 중장비 지원 등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해당 지회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상생협약의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오는 30일에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타 지역 환경청과도 순차적으로 협의하여 지역민원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 전경>



<류연기 청장>